

전라북도 평생학습 정책 아젠다

연구진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ISSUE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3.30 vol.158

www.jthink.or.kr

ISSUE BRIEFING 2017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3.30 vol.158

CONTENTS

전라북도 평생학습 정책 아젠다

1. 사회적 이웃과 취향이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04
2. 전북 몫 찾기, 보통의 정서가 평생학습과 연계한다	06
3. 4차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평생학습이 길을 찾는다	07
4.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촘촘한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을 요구한다	08
5. 절문근사(切問近思), 문해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09
6. 네트워크 및 협업, 평생학습의 마중물이다	10



발행인 강현직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평생학습 정책 아젠다

2017년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저성장과 불확실한 경제가 지속화될 가능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을 찾기 위한 학습 욕구가 분출될 것이다.

민선6기 2017년 전라북도정 목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어 평생학습 정책은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내 트렌드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평생학습 소비 패턴이 변화될 것이다.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의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교육 등 영역이 새로운 평생수요에 맞게 조금씩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6기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전북 몫 찾기 등 전북도민에게 평생학습의 패턴과 학습소비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평생학습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국내의 다양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2017년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 및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평생학습의 정책 아젠다를 전망하고자 한다.

01 사회적 이웃과 취향이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최근에 사회적 이웃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인 취향이 올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평생학습 공동체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이웃 공동체와 취향 공동체이다. 사회적 이웃 공동체는 사회적 이슈와 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제해결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공동체이다. 가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는 빠르게 붕괴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로 사회적 이웃 공동체가 평생학습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소셜믹스(social mix)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공유된 가치와 생각에 의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학습과정을 더욱 중요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습하고, 학습과정을 통해 공동체대감이 형성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웃 공동체는 이웃에 대한 개념 변화와 확장에서 비롯되었다. 전통적인 이웃의 개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바로 옆을 의미하는 근거리 또는 가족 세대와 타 가족 세대 간의 생활공간의 근접성을 의미하였다. 좁은 의미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웃의 무관심, 비인간성, 생명 경시, 집단 갈등, 이혼 및 자살률 증가,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웃의 범위는 지역사회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이웃 공동체는 전통적 개념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실천하는 대안적 공동체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소소한 일상학습의 실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평생학습에 관심이 집중된다.

취향 공동체는 자신만의 취향을 즐기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 소소한 관심과 취향을 상호 공유하고 같이 학습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학습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습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평생학습에 의한 취향 공동체 형성은 평생학습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추진과제 1. 소소한 일상학습(학습동아리)과 학습공동체에서 도민의 행복이 만들어진다

소소한 일상학습이 개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경제적으로 덜 풍족하더라도 개인의 취향과 비슷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학습하고, 이들과의 동아리 형성을 통해 삶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무형식 학습모임을 활성화하고 학습경험을 나누고 실천하는 학습동아리 육성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학습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복형 학습공동체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2. 도민이 제안하고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 '전복을 바꾸는 생생도민'어워즈 개최

전라북도 평생학습 정책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평생학습은 결국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만족을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도민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며 지역사회를 바꾸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복을 바꾸는 생생도민' 어워즈는 도민이 제안하고 만들어 가게 된다. 도내 학습동아리 또는 도민 대상의 평생학습 실천사례와 제안사업 발굴로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추진과제 3.

도민들이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유공간 '틈틈이' 발굴사업 추진

일상에서 학습하자.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틈새 시간과 틈이 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유희공간을 발굴하고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 틈틈이 학습공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과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유공간이다. 몇 사람만 모여도 학습할 수 있도록 도내 유희공간을 마련하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추진과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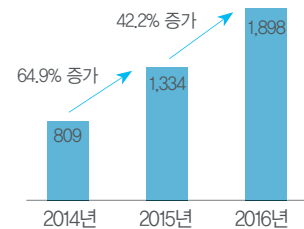
도민들의 근거리 학습, 시군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도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확대가 필요하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원하는 경우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희공간을 발굴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학습 공간을 의미한다. 전라북도 행복학습센터는 2014년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시작으로 2015년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로 확대되어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4년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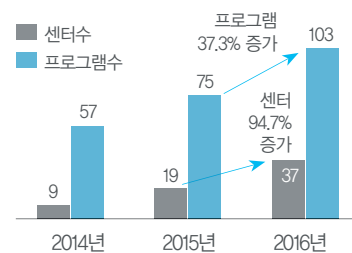


센터, 57개 프로그램, 809명 학습참여자에서 2015년 19개 센터, 75개 프로그램, 1,334명 학습참여자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37개 센터, 103개 프로그램, 1,89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행복학습센터는 근거리 지역에서 평생학습수요에 대응하고, 평생학습의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지속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민의 근거리 학습권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주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당분간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관계자 연수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학습센터 학습참여자 수〉



〈행복학습센터 및 프로그램 수〉



02 전북 뭍 찾기, 보통의 정서가 평생학습과 연계한다.

2018년이면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지 1,000년이 된다. 전라도는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주와 나주를 딴 지방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태종 2년(1393년)에 제주 포함하여 전라도를 관할하는 전라감영을 전주에 설치하여 고종 32년(1895년)까지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 중 전주는 전라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현실은 낙담하지 못하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경제적 낙후는 계속 심화되었다. 지역발전지수와 지역낙후도 지수는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호남권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광주·전남에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무려 90%가 집중될 정도로 전라북도는 소외받고 있었다. 광주 및 전남에 위치한 호남권 지역본부가 전북을 관할하면서 재원배분 기능 수행 및 주요정책 수립에 효율성, 형평성의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장차관의 임명(현 정부 차관만 4명)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의 위원 915명 중 전북 인사는 2%에 불과할 정도로 인사 확대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은 SOC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남뿐이다. 공항 접근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U자형 철도망 중 유일하게 서해안 새만금 철도 미반영,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무주~성주 구간 미반영(성주~대구 구간만 반영), 도로포장율도 72%로 전국 평균(79.8%)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제 전북 뭍 찾기를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 뭍 찾기는 전북만이

독자권역 설정을 통해 행정,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의 독자권역으로서 도민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전북의 역사적 위상 및 지역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 정체성 등 재정립 등을 통해 전북 뭍 찾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뭍 찾기는 전라북도민들 보통 정서이다. 도민들은 전북 뭍 찾기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고 전북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된다는 얘기가. 이러한 과정에서 전북학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며, 전북의 정체성이 담긴 콘텐츠 개발 및 세미나가 이루어질 것이다. 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지역학(예컨대, 대전학, 충남학, 세종학, 울산학, 광주학, 남도학, 서울학, 제주인문학당 등)을 평생학습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추진과제 1. '전북 제대로 알고 전북 뭍 찾기' 전북학 세미나 및 전북학 평생학습 연계 사업 추진

전라도 천년 및 전북 뭍 찾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테마를 기반으로 학문적 접근이 평생학습의 영역에서 인문학적 소양 강화 및 도민의 자긍심 고취, 정체성의 위상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북학 세미나 및 평생학습 연계사업 등이 본격화 된다.



03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평생학습이 길을 찾는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및 경제구조, 행동양식, 생활방식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제3차 산업 혁명인 컴퓨터와 ICT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감소가 예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WEF(World Economic Forum)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만여개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WEF, The Future of Jobs, 2016. 1. 18). 한국고용정보원 조사(2016. 10. 25)에 의해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금융·보험 관련직 81.8%, 화학 관련직 63.6%, 재료 관련직 61.4%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까지 직업종사자 61.3%가 인공지능 및 로봇으로 직업이 대체 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증가하겠지만 일자리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이다. WEF에서도 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해 평생학습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변화가 혁신적으로 우리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교육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된 시점에서 평생학습은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과 직업능력개발이 매우 중요한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평생학습 지원과 운영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추진과제 1.

지역 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전라북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특화사업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협력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2.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0세 시대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발굴 및 사회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 맞춤형 학습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3.

평생학습 격차해소 지원 사업

평생학습은 격차가 없어야 한다.

지역, 계층, 정보, 세대, 빈부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도내 평생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전 도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新) 소외계층 대상으로 평생학습 격차 해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04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촘촘한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을 요구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의 성장은 일상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여 평생학습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을 통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다. 학습자들은 좀 더 심리적인 편안함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학습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싶어 하고, 그들 또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례와 정보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과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사업 등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트렌드에서 평생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은 시·군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 평생학습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망이다. K-MOOC 사업은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를 말한다. 무크는 학습자의 수동적인 학습방식에서 벗어나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른 학습자간 지식 공유를 통해 새로운 학습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평생학습의 중요한 트렌드로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평생학습자의 수요와 요구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 해야 한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유망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전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과제 1.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시군 연계 사업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은 전라북도에 있는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에 4개 시(전주, 익산, 정읍, 김제)를 다모아 정보망을 연동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타 시군과 연동하여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2. 전라북도 평생학습 생생정보통(生生聽晞通) 구축 및 운영

전라북도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생생정보통은 평생학습의 생생한 정보를 듣고, 보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SNS 운영, 블로그 운영, 홍보물 제작, 생생정보통 시민기자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3. 평생학습 아카이브(디지털 기록물 보관) 및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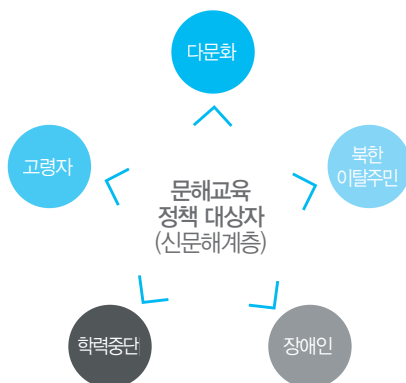
전라북도 평생학습에 관한 연구, 기록, 사례 등을 체계적 수집, 축적, 보관,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아카이브(디지털 기록물 보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 관련 DB 조사하고, 구축하여 평생학습 정보 일원화 및 현장 데이터 활용성을 증대한다.

05 절문근사(切問近思) 문해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전라북도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293,899명이다. 이중 초등 잠재수요자는 110,826명, 중등 잠재수요자는 183,073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 정의하고 있다(제2조3항).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교육을 떠나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으로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가져오는 평생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확대로 인해 문해교육은 문자해득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문해교육, 교통 안전문해, 일상생활법률 문해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해교육의 대상자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무학, 저학력자, 중고령자가 대부분 대상이었다면 이제 다문화, 장애인, 학력중단,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 문해계층 대상자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에 40%가 넘을 정도로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가 많아 도내 문해교육에 대한 큰 관심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2월에 제정되어 문해교육의 정책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해교육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 및 자원봉사자 분들의 공헌이 크다. 그 노력이 지역을 바꾸고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추진과제 1. 전라북도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전라북도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문해교육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해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문해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 등에 대한 현장 활동가 중심의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과제 2. 문해교육 교원 연수 및 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

초등학력인정제도에 따른 전문적인 문해교육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여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 등 상호 학습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추진과제 3. 문해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및 지원

전라북도 문해교육 관계자 및 교원,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문해교육 네트워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해교육의 허브 역할 추진 및 문해 수요자 대응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문해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과제 발굴 및 자원의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추진과제 4. 문해교육 정책포럼 및 전라북도 문해의 달 공동행사 개최

전라북도 문해교육의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슈 및 현안 과제 등을 중심으로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 문해의 달 행사로 시화전 및 문해교육 학습자 학예발표회 등을 문해교육 관계자들과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여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참여를 촉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06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평생학습의 마중물이다.

평생학습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도민들의 평생학습 수요 및 기대 등을 철실하게 묻고 현장을 보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학습 만큼 현장과 밀접한 것이 별로 없다. 현장에서 기획이 되고 현장 속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생학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네트워크와 협업이다. 네트워크는 전라북도 평생학습 관련 민·관·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는 필수적이고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며, 도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공동의제를 협업으로 풀어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생학습의 성장과 발전은 네트워크와 협업에 의해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과제 1.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같이' 운영

전라북도 민·관·학 평생학습 추진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을 '같이'논의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2.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을 위해 평생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종사자 직무연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성과 공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과제 3. 전라북도 평생학습 포럼 개최

전라북도 평생학습의 이슈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마련하고자 평생학습 학계, 현장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한다. 평생학습 포럼 개최를





전라북도 평생학습 정책 아젠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